

# 韓國電子工業의 現況

韓國電子工業協同組合

理事長 朴 勝 璨

지난해 韓國電子工業界는 510億원의 生産額을 記錄하면서 이 가운데 70%에 달하는 8,800萬달러를 輸出하였다. 六·二五 動亂 以後 戰火를 입은 通信施設 복구 契機로 呱呱의 소리를 지른 韓國電子工業이 20年동안에 걸쳐 이룩한 成果라면 그 長久한 歲月로 미루어 별로 놀라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1965年만 하더라도 總生産 25億 4千萬원, 輸出 155萬弗에 不週하였던 事實을 想起한다면 이는 분명히 놀라운 伸長이며 飛躍인 것이다. 韓國電子工業은 7年만에 生産額 20倍, 輸出額 55倍 增이라는 記錄을 樹立한 셈인 것이다.

그 동안 電子企業도 近 100倍로 불어났으며 輸出에 活路를 찾는 業體도 50倍로 늘어났다. 1965年의 生産品目 10개는 1971年에 이르러 약 10倍로 불어났고 Radio와 Dry Cell의 2個品目에 그쳤던 輸出品도 生産되는 모든 品目으로 擴大되었다.

이제 韓國의 電子工業은 올해 안에 1971年度의 總生産額을 훨씬 上廻하는 1億 5千萬달러를 輸出할 것으로 推定되고 있으며, 8月末 現在 77,759千달러를 記錄하여 지난해의 輸出에 이미 肉迫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4個月 동안 韓國電子工業이 果然 72,241千달러를 더 輸出하여 1972年初에 이미 推定되었던 1億 5千萬달러를 채울 수 있을지는 그 成敗如何에 不拘하고 韓國電子工業界에 重大한 問題點으로 提起될 여러 徵兆가 있다.

韓國에서의 電子工業의 概念定立이 1969年初에야 이루어졌으며, 政府의 電子工業 育成을 위한 諸施策도 역시 이해를 고비로 本格化되기 始作하였다는 점을 考慮할 때 韓國電子工業의 오늘날의 發展은 政府의 育成努力과 企業人들의 열의, 그리고 深化되는 電子工業의 國際分業性에 그 原動力을 찾을 수 있다. 電子工業의 國際分業性深化에 따른 市場交流 등은 어디까지든 外的인 要因으로 볼 수 있다면, 韓國政府와 韓國電子工業人들의 電子工業 育成에 대한 열의는 內的 要因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늘날의 發展의 內的要因으로 政府와 企業人을 들 수 있다면 앞으로 提起될 수 있는 이 問題點을 解決할 責任도 當然히 이 두 主投에게 돌아올 것이 確實하다.

初創期的 隘路는 말 할 것도 없이 資本, 技術, 市場의 確保難

이었고, 이와 같은 現象은 오늘날도 滿足스럽게 改善되었다고 믿을 수는 없다. 勞賃의 低廉, 土地 및 諸間接資本의 低廉性은 韓國의 他分野에도 미치고 있는 놀라운 成長으로 해서 그 Maker를 점차 喪失하여 正比例의으로 企業을 압박하고 있으며, 특히 生産額의 伸帳에 비하여 踏步하고 있고 自主技術開發은 우리에게 앞으로의 活路가 무엇이나 하고 深刻한 疑問을 남겨 하고 있다.

오늘날 電子制品의 生産이나 輸出이 단순히 商品의 生産이나 輸出에 그치지 않고 그 maker 내지는 그 國家가 保有하는 모든 能力의 總和라는 方向으로 概念의 轉移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우리는 單純한 加工이나 組立만으로서의 곤란한 局面으로 접어 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事情은 어디까지나 韓國企業에 適用되는 것으로서 韓國에 進出하려는 海外企業들에게 아직도 韓國은 수 많은 Merit에 차 있는 것 같다. 亞細亞에서 最優秀한 低勞賃勞動力이 있으며 其他 諸間接資本도 國際水準에서 볼 때는 아직도 低廉하다. 지난해 以來 進行되고 있는 韓國의 南北接觸은 外國人投資家들에게 廣闊한 새로운 可能性을 提示하고 있을는 지도 모를 일이다.

이와 같은 與件下에서 우리 韓國電子企業들은 獨自의으로 解決할 수 없고 諸問題例를 들면 수 많은 自主技術의 開發로 이어질 수 있는 原資材確保 Pool을 생각하기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움직임이 어떤 形態로든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競爭力은 越等 向上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움직임이 自主技術 Pool 開發이라는 形態로까지 飛躍할 수는 없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면에서 均衡있는 發展이란 그것의 範圍의 大小를 莫論하고 至難한 일이다 아직도 많은 制約이 바람직하게 풀리지 않은 점이 많은 것은 事實이다. 너무나 急激한 伸張은 목은 包袋에 담을 수 없을 만큼 多樣하고 微妙한 面도 많았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 20年을 돌이켜 보는 率直한 見解이며, 이 時點에서 韓國電子工業의 未來像을 展望하며 새로운 覺悟와 決意를 다짐하는 所以이다.